

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- 배인호 초격차(超格差) 국어 제공

124/200

#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014학년도 예비 B형

[40~42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지금은 ㉠ 남의 땅—빼앗긴 들에도 온 오는가? [A]

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 
㉡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 
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. [B]

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 
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 
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 다오.

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 
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 
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.

고맙게 잘 자란 ㉢ 보리밭아  
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 
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.

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 
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 
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. [C]

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 
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 
이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.

내 손에 ㉣ 호미를 쥐어 다오  
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 
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.

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 
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자  
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. [D]

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 
㉤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 
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꿨나 보다.

그러나 지금은—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. [E]

- 이상화, 「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」 -

(나)

새벽 시내버스는  
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 
엄동 혹한일수록  
선연히 피는 성에꽃  
어제 이 버스를 탔던  
처녀 총각 아이 어른  
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 
입김과 숨결이  
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 
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 
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 
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 
다시 꽃이파리 하나, 섬세하고도  
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 
어느 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 
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 
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 
성에꽃 한 잎 지우고  
이마를 대고 본다  
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 
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 
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.

- 최두석, 「성에꽃」 -

40. (가), (나)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.
-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해 분위기를 주체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.
-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.
-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.
-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.

41. <보기>를 참고하여, (가)의 [A]~[E]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— <보 기> —

1920년 반에 일부 시인들은 민중의 참담한 상황, 그리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에 주목하면서 민중의 생활을 노래하였다. 이런 점은 「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」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.

- ① [A]의 ㉠은 당시 민중의 참담한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군.
- ② [C]의 ㉡에는 민중의 생명력이, ㉢에는 노동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가 함의되어 있군.
- ③ [B]와 [D]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변화로 보아, [C]에는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도 내재되어 있군.
- ④ [B]의 ㉣에는 화자의 이상이, [D]의 ㉤에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군.
- ⑤ [A]와 [E]의 연관으로 보아, [B]~[D]에서의 화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꿔 보려는 적극적 의지의 소산이군.

42. '성애꽃'에 대한 화자의 심미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'성애꽃'은 새벽 차창에 피어나 있어. 화자는 시간과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.
- ② '성애꽃'은 시내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함께 피워 낸 것이야. 화자는 서민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의 바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.
- ③ '성애꽃'은 은밀히 피어나는 것이야. 화자는 현실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해.
- ④ '성애꽃'에는 누군가의 막막한 한숨이 담겨 있어. 화자는 사람들의 고통이 현실에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해.
- ⑤ '성애꽃'의 한 잎을 지우고 화자는 친구를 떠올려. 화자는 회상을 통해 성애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.